

목어

부끄러운 마음

얼마 전 외신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외국인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라고 보도했다. 무엇이 그들을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상식에 맞는 정도보다는 관행으로 짚어보면 편법 때문일 것이다.

10여년 전부터는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취업해 들어왔다. 낮은 임금과 학대에 가까운 인권의 사각지대를 생각해 보면 외신을 하나도 나무랄 처지가 못된다. 필자는 매년 의료봉사차 네팔에 들리는데, 한국에 체류중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보았다.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지난 11일 '꽃세상'이란 작은 모임에서 푸스카르 사하(30)님과 찬드라 구몽(여)님을 초청해 그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전하고 죄송한 마음을 속죄하는 행사가 있었다. 행사하기보다는 아름으로 모인 꽃세상의 회원들이 진지하게 외국인에 대해하는 우리에 속내를 해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푸스카르 사하란 청년은 13년을 기약으로 자전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면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고, 찬드라 구몽은 보도된 바 있듯이 6년 동안 부녀보호소와 정신병원을 전전한 네팔의 근로자이다.

찬드라 구몽을 그토록 오래 방치(?)했던 밑바탕에는 외국인인 경시하는 부끄러운 치부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들어 더욱 부끄럽다. 천신과 같이 세상에 알려진 첫 보도는 찬드라 구몽의 삶과는 거리가 먼 기사거리로만 취급되면서 더욱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문제는 6년 동안 그를 찾았다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한 당국자의 자세가 아쉽다. 그가 질병이 있던 없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나 작은 관심만 있었어도 찾을 수가 있었다. 네팔근로자 공동체나 가족들은 실존이고를 해 둔 상태였으니 말이다.

외국인이라고 다 그런 대접인가. 아니다. 강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인들 앞에선 비굴하고, 약한 외국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선 오만스러운 우리 모습을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우리들의 속내에 도사리고 있는 비굴함과 오만감을 직면하고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보자.

이근후(이화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초파일·성도절 기념법회 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살피는 북한불교

사찰 61곳·스님 300명·신도 1만명

해방 전까지만 해도 북한지역에는 3백60여곳의 사찰이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대부분 제모습을 잃어버렸다. 공산정권이 들어서며 실시한 종교탄압 정책과 토지개혁으로 사찰 재산 및 사찰소유 산림이 몰수되었다. 46년 당시 몰수된 종교단체 소유 토지는 북한지역 전체 토지의 1.4%에 달했다.

현재 북한불교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찰 61곳, 승려 300명, 신도 1만여명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실행활동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류성민 한신대교수는 <북한주민의 종교생활>(공보처, 1994)에서 "귀순한 사람들의 북한 종교실태에 대한 증언을 종합해볼 때 북한에는 종교가 전무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단지 흔적 정도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포럼회 공동회장)은 "국가적으로 불교를 믿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별행사 때의 설법, 가정 방문을 통한 포교 등이 불교 승려의 주된 활동이고 전문적인 교리의 포교 자료는 미비하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불교활동이 행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법타스님은 또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으로부터 북조선 불교는 남조선과 같은 조계종이며, 소의경전도 금강경과 반야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승려 양성은 평양의 3년제 불교학원에서 맡고 있으나, 한국처럼 행자·사미·비구의 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사찰에 사발상이 늘고 불교용품과 파는 불구점도 생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88년 5월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최초로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년 초파일, 성도절, 열반절 기념법회를 보현사 광범사 용화사 등에서 개최하고 있다. 특히 92년 초파일 법회 때는 찬불가를 합창하고 탑돌이 등 전통의식을 재현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조선불교도연맹의 초청으로 방북한 지선, 명진, 성조스님 등 불교추진위 대표단, 성조 총리위원장 등 30여명 대표단과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으며, 이때 방북한 신도들이 상귀의 반야경을 목속하고 찬불가 사용서원을 밝혔다.

북한지역의 불교 및 종교활동은 북한 정권의 종교정책이 좌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상 종교단체는 당의 하루기관일 수밖에 없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0년대말까지는 사회주의적 반종교 논리를 근간으로 반종교정책을 폈다. 김병로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58년 중앙당 집중지도 사업을 통해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분류하여 격리수용 또는 감시 및 차별적 대우를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70년대는 반종교정책을 펴면서도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기독교연맹 등 종교단체들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변화를 모습을 보였다. 73년 8월부터 대외관계의 변화에 따라 상호교류 및 외국에서의 접촉을 통해 북한종교인



북한 주민들이 개성 관음사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북한은 88년부터 초파일 성도절 열반절 기념법회를 매년 봉행하고 있다.

들의 통일전선사업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는 남한출신의 해외교포 종교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불교 대표단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인 시기이다.

90년대에는 북한지도부의 종교인식이 공식적으로 변했음을 밝혔다. 92년 개정헌법에서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는 조문을 달았으나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했다. 당장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 내 개신교신자는 1만여명, 목사 20명, 천주교신자는 800여명, 신부·수녀는 없다. 원불교는 290여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천도교는 해방 당시 신도 280여만명으로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이

며, 지금도 1만5천여명의 신도가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불련은 어떤단체

45년 창립...北불교 대표 기아구호관련 활동 늘어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은 북한불교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45년 12월 북조선불교도연맹으로 창립됐으나, 73년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북한의 반종교정책의 영향으로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후에도 남한에 대한 비난 성명 발표 등 정치선동의 역할에 그쳤다. 92년 북한의 헌법 개정과 식량난 해결을 위해 남한의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조불련은 4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정부 정책을 받들고...국외의 국토안정과 완전 자주독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등 7개항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법타스님은 "이와 같은 강령으로 활동해온 조불련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동조 또는 협력하는 조직으로 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불교연구, 민족사, 2000)

현재의 위원장은 박태호 선사로, 법명은 학림(鶴林)이다. 올해 81세. 79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조선종교인협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남한불교계와의 접촉은 황병준 부위원장과 심상진 서기장, 임성훈 평양시 부장 등 3인이 주로 나간다.

정성운 기자

남북 불교교류 주요일지

▲86년 12월=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본부 임원단 네팔에서 북한 불교도와 회동  
▲88년 7월21일=하와이 대원사 주지 대원스님, 원장 겸 북한 사회과학위원회 위원장 초청으로 남북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과 회동, 평양 용화사에서 남북통일기원 합동법회 거행

▲89년 6월17일=조계종 승려신분으로 법타스님 북한 최초 공식방문 △10월14일 종단협의회, 한강 민족화합 통일기원 유등대법회,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이 보내 온 백자여래불상 점안

▲91년 10월29일=남북한 불교지도자, 미국 LA 관음사에서 남북 및 해외교포 불교도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최초의 공식 불교교류)

▲93년 9월9일=북한 사회과학원 발행 <고려대장경 해제본> 전 15권 1집 국내 최초 반입

▲94년 7월20일=평화법 '하나로 평화사건', 법타스님, 이기범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95년 5월24일=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조불련 박태호 위원장과 중국 북경 유류관에서 회동, 남북불교도 최초 공식회담

▲96년 2월 26~29일=중국 북경에서 남북종교인회의 개최, 조계종 포교위원장 성타스님 참가 △4월 2일 평북함 미주본부 고문 정상스님, 상임부회장 지현상기 방북

▲97년 1월10일=우리민족서로돕기공동위원회, 대한적십자사에 북한불교도 식량보내기 성공 5000만원 전달 △4월30일 조계종, 중국 단둥에서 조 불련에 유수수 1천380점 전달 △5월8일 북경포교기독교추진위원회(북추위) 발족 △5월14일 조계종과 조불련이 분단이후 최초로 부처님오신날 북측 남북공동발원문 봉독 △5월23일 평북함 미주본부 회장 도안스님 방북, 12월23일 평북함 △9월15일 불추위, 조불련에 지경기탁한 유수수 2천톤 전달 완료 △10월1일 우리민족서로돕기공동위원회 △12월26일 평북함 상임부회장 지현상기 방북, 조불련과 사리원사 금강수공장 설립 합의

▲98년 7월22일=평북함 미주본부장 도안스님, 사리원 금강수공장 운영 점검과 2차 일로지인(일기부 60분차 방북 △8월 25~28일 종단협의회 불추위 평북함 전차종 대표단 8명, 북경에서 북한 조불련과 회담 △9월16일 평북함, 북경에서 조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와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에 관한 협약서' 체결 △10월30일~11월7일 평양 '은사 통일 음악제', 광범사 '고운이상생명 천도제', 보현사 '평화통일 기원 타종교'

▲99년 6월3일=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단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법회 봉행 △8월 5~14일 불추위 지선, 성조스님, 유지인 사무총장 방북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개최, 조불련 대표들과 회담, △8월15일 종단협의회와 조불련, 남한 조계사와 북한의 보현사에서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기원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 봉행 △9월18~25일 전각종 성조 총리위원장, 휴먼 종의회의장, 회장 국제불교연구소장, 지현 전각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대표단 4인 7박8일간 북한 공식(종단협의회)

▲2000년 3월11일=평북함과 조불련, 북경에서 부처님 오신날 남북통일법회 및 공동발원문 채택 집합의 △3월 12~15일 종단협의회 태고종 천태종 전각종 총지종 대표단 중국 북경에서 조불련과 접촉, 조불련, 전각종 대표단 공식 방북 요청

김재경 기자(jkjm@buddhopia.com)

◇기사보충 '선과 21세기' 쉽니다.

인터뷰 내달 말 북한가는 장지현 정사

“정보 합동조사 등 교류 확대”

북한방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지난 95년, 북한을 방문, 사찰답사등을 하고 방문기를 본지에 연재한 장지현 정사(전각종 복지재단 사무국장). 95년부터 매년 북한을 방문해 남북불교교류에 한 역할을 담당해온 지현정사에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대하는 감격이 남다른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냉전관계였던 한반도에 평화통일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표현한 지현정사는 "경제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돼야만 사회·문화적인 교류의 골교도 활짝 트이게 되고 따라서 불교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50년 분단의 세월을 종식하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 선 만큼 서두르거나 조급해하기 보다는 서로가 신뢰를 지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며 조급성을 경고했다.

지현정사는 "북한은 종교적인 관념은 없더라도 전통문화보존 차원에서 불교적 성향이 강하고 사찰이 유적의 휴식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다. 따라서 50년 단절을 이을 전통의 뿌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 불교계가 다른 종교보다 교류에 앞장설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우리 불교계가 보수적 경향에서 벗어나 인식전환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불교계도 단순한 지원에서 한발



나이가 문화재 합동조사, 공동 관심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 등 보다 한차원 높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통일을 앞당기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재언했다.

지현정사는 오는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성조총리위원장 등 전각종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설고문: 고은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인쇄인: 김규석
인터뷰 현대불교 www.buddho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인사 (02)737-009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오분향...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생기향... 효능: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공급처: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심학불교대학 내 해인선원 사업부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에금주: 김정순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